

압둘라2세 요르단 국왕을 위한 만찬 건배사

존경하는 압둘라2세 국왕 폐하,

우리나라는 1년 중 지금이 가장 더울 때입니다. 이런 때에는 폐하께서 즐겨 하신 스쿠버 다이빙이 아주 좋을 듯합니다. 그만은 못하겠지만, 반가운 손님과 친선을 나누는 것도 꽤 괜찮은 피서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폐하의 시원시원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나는 오늘 정상회담에서 요르단과 중동의 미래를 내다보는 폐하의 통찰력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요르단이 중동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은 폐하의 지도력 덕분일 것입니다. 폐하께서 선왕이신 후세인 국왕의 뜻을 이어받아 기울여 오신 중동평화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우리는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비롯한 네 건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양국관계가 한층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 두 나라의 경제협력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요르단의 견실한 성장, 우리

의 세계적인 IT 경쟁력 등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의 긴밀한 우호협력은 중동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번 폐하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더욱 굳건한 동반자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왕 폐하의 건승과 우리 두 나라 국민의 우의와 협력을 위한 건배를 제의합니다. 하나 더 보태겠습니다. 지난 한·요르단 축구경기에서 한국이 이기기를 바랐는데 이기지 않고 비기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요르단 모두 8강에 진출해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며, 함께 건배를 제의합니다.